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독자지원부 063-220-241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음 10월 2일) 제21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유치원 문제 해결책 '알맹이 없네?'

교육부 혁신방안 아직도 '호지부지' 근본적 대책 시급에도 원론적 이유만 들어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중산층 등은 모집대상 제외... 1순위는 저소득층 국공립이 부족한데도 사립유치원 폐원은 늘어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근심'

"우리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에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유치원생들을 둔 학부모들 근심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처럼 했지만, 아직도 호지부지한 상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교육부는 원론적 이유만을 들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도 중산층이나 서민층 일부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공립유치원 모집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법정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또한 모집 2순위는 다문화·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다. 유치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내놓아 실현가

능성에 궁급점이 생긴다. 또다른 문제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1순위로 사립유치원 폐원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곳이 전국 38곳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6일 기준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38곳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비교하면 학부모 간담회나 가정통신문,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폐

원 안내를 한 곳은 9곳, 실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1곳 증가했다. 폐원을 안내한 9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대구 4곳이다.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이중 3곳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식 폐원 신청을 한 곳은 인천의 사립유치원으로, 운영자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올해 4월부터 휴원 중이다. 이미 폐원 승인이 난 유치원은 2곳,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유치원은 1곳(경기)으로 이전과 같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고, 신설은 주춤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현재 원아를 인근 유치원에 수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르고 있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향후 도내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처가 주목된다. /창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축척해온 탄소기술로 연구소기업 설립한다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 특허 등 기술력 이전 기업 경쟁력 강화... 2023년까지 50개 세우기로

전주시가 그간 축척해온 탄소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분야 특허와 기술력으로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되는 기업을 말한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인 시대 흐름에 맞춰 현재 보유중인 탄소분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탄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8일 시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10개의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오는 2023년까지는 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 시장성이 있는 유

망 기술도 적극 발굴해 가치평가를 시행,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립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에 전담 연구원을 매칭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지원한다. 또한, 등록된 기업에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면제 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탄소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탄소기업을 감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지역 탄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달 열린 '탄소기술 실용화를 위한 Tech day'를 통해 그동안 축척해온 탄소 분야의 특허기술과 논문을 공개하고, 기술이전 및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소기업' 등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부실채권 소각...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 전주시는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 행사 일환으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4면>

청년들의 근로체험 · 진로특강 · 여행을 '하나로'

전주시, '청년 캡이어' 개설키로... 소통 · 창업 · 문화 등 정책 확대

전주시가 청년들의 근로체험과 진로특강, 여행을 결합한 '청년 캡이어 정책'을 개설한다.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청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주요 청년정책은 청년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확대 지원하고, 추가 신규정책들도 발굴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취업준비기간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접장장 대여지원을 한다. 또, 취업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근로체험과 진로교육, 여행을 결합한 '청년 캡이어 정책'과 시의 청년정책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해온 △청년과의 소통 △청년창업 지원 △청년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혜택 등은 확대한다.

청년과의 소통의 경우,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온두레공동체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청년 창업지원의 경우, 시는 기존 청년상상놀이터를 중심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공모전 참여 지원 △플리마켓을 통한 아이템 조사 기회 제공 △창업코어스페이스의 소모임 공간 개방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 우수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혜택 지원의 경우, 시는 청년임포 프로젝트의 대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 △청년 사회주택 입주 지원 사업 등도 중앙부처 및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온두레공동체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일도도시 도시재생 공모사업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주신진예술가 지원 및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팔복예술공장 청년 예술가 입주지원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한다. 시는 향후 청년활동가 포럼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2022년까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자 전주시 심성장산업본부장은 "청년정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간 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2018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성료

'2018 익산 GRAND 취업박람회'가 8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려는 도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익산권내 유망 중소기업 등 총 30개 기업이 현장에 참여하였고, 2,000여 명이 넘는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에 대한 열기를 고조 시켰다.

이번 행사장은 면접 채용관, 컨설팅관,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됐으며, 부대행사관으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관, 이력서용 무료사진촬영관 및 직업선호도검사관, 이미지메이킹관, 여성구인구직컨설팅관, 전문인적성검사관, 창업컨설팅관,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20개의 맞춤형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참가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중 2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 채용되었고 기업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추가 채용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프라인 현장 취업박람회에 이어 온라인(http://open.jobkorea.co.kr)을 통한 취업박람회는 12월 7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매일 INDEX

5면 -도교육청, 예산안 오늘 의회 제출

축! 전주매일 창간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 사용은 친환경 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저렴해서 가정부담과 국가경쟁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종이 수입에 따른 외화남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조세경쟁력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EBS2를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보다 인공적인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아, 기체 배출이 없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자연순환단체연대회의
6rg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